

“낙후를 기회로” ... 투자선도지구 공모 5곳 선정 국비 마중물 480억원, 민간투자 7,875억원 이끈다.

- 항공·우주, 데이터센터, 특화산업, 관광 등 지역특화 거점 5곳 선정
... 총사업비 9,336억원, 민간투자 7,875억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「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」 결과 충북 청주, 전북 무주, 전남 진도, 충북 보은,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 - 국토교통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함께 다듬고, 5월 접수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·현장·종합평가를 진행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거점 사업을 가려냈다.
-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수단으로, 이번 공모는 비수도권을 수도권과 동등한 성장축으로 키우는 ‘5극 3특’ 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기조 위에서 추진됐다.
- 선정 사업들은 항공·우주, AI 데이터센터와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전략산업과 맞닿아 있다. 반도체·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무대를 수도권 너머 지방으로 넓히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.

< 2026년 투자선도지구 사업 선정 결과 >

구분	사업 개요
충북 청주 대청댐 수열특화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데이터센터, 스마트팜 등 수열에너지 기반 특화산단 조성 • (총사업비) 3,525억원 / (면적) 653,921m²
전북 무주 성장촉진 항공·우주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로템 발사체·엔진 연구개발(R&D) 및 시제품 제작 시설 • (총사업비) 3,488억원 / (면적) 1,191,247m²
전남 진도 성장촉진 글로벌 김 클러스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특화 김산업 생산·가공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• (총사업비) 1,011억원 / (면적) 279,112m²
충북 보은 성장촉진 편(Fun) & 힐(Hea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병산 관광자원을 연계한 숙박·체험시설 등 조성 • (총사업비) 812억원 / (면적) 110,210m²
강원 인제 원통 제2농공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제역 개통(예정)과 연계한 국방·군납 특화 산업 거점 조성 • (총사업비) 500억원 / (면적) 198,101m²

- 청주는 대청댐 용수의 연중 일정한 수온으로 냉난방하는 수열에너지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의 냉각에 활용하는 친환경 특화단지를 조성한다.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냉각을 대청댐 수열에너지로 해결해 에너지와 탄소 소비를 줄이는 사업으로,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가 3,515억원을 투입한다.
- 무주는 현대로템이 초음속 제트엔진·우주발사체 엔진을 연구개발(R&D)부터 시제품·시험·양산까지 한곳에서 만드는 항공·우주 종합생산기지를 구축한다. 이 사업지구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·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거점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며, 현대로템이 3,034억원을 투자한다.
- 진도는 김·수산물 산지의 강점을 살려 생산·가공·연구·수출을 한곳에 묶은 ‘K-푸드 김 수출 허브’ (글로벌 김 클러스터)를 조성한다. 김 생산·가공 시설,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등과 함께 상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.
- 보은은 속리산·범주사 관광과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는 많지만 숙박 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이 이탈하던 구병산 관광지에, 호텔·콘도 등 체류형 휴양·체험시설과 구병산IC(하행선)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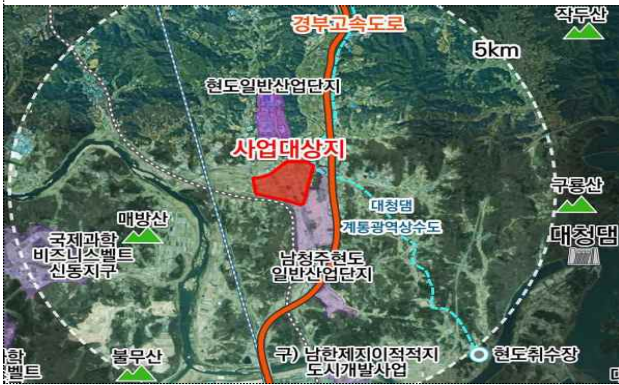
- 인제는 접경지역의 군부대 수요를 겨냥해 군납식품 및 보급품 제조와 물류를 한곳에 모은 **국방·군납 특화 산업단지**를 조성한다. 동서고속철도 인제역과 연계해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넓히는 거점육성형 사업이다.
-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지역개발계획 반영,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**투자선도지구로 지정·고시**되고, **실시계획 승인**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.
 - 투자선도지구에는 **조세·부담금 감면, 건폐율·용적률 완화** 등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.
 - 특히, **성장촉진지역**에 해당하는 투자선도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**국비 최대 100억원**을 지원한다.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감면과 함께 법인세·소득세를 3년간 50% 감면받고, 입주기업은 법인세·소득세를 3년간 전액(100%) 감면받는다. 취득세 및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50%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.
-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“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지역에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, 청년을 위한 **좋은 일자리**를 제공하여 지방을 **균형성장의 거점**으로 발전시키겠다.” 라고 하면서,
 - “특히,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중점 검증하였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현	(044-201-3662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민	(044-201-3669)
			주무관	이의영	(044-201-3670)



① [충북 청주]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(총사업비 : 3,525억원)

- (목적) 수열에너지 기반 AI 융복합 단지 조성
- (주요내용) 데이터센터, 산업 및 지원시설, 주거단지 등 조성
- (총사업비) 3,525억원 / 국비 5억원, 지방비 5억원, 기타 3,515억원
- (면적) 653,921㎡ (19만평)



② [전북 무주] 무주 항공·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(총사업비 : 3,488억원)

- (목적) 전북 동부권 중심 항공·우주 첨단산업 거점 전환
- (주요내용) 항공·우주산업단지 조성, 연계도로 및 터널 개설 등
- (총사업비) 3,488억원 / 국비 100억원, 지방비 354억원, 민간 3,034억원
- (면적) 1,191,247㎡ (36만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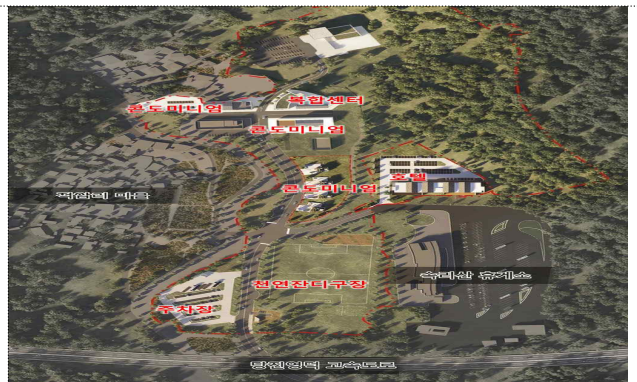
③ [전남 진도]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 투자선도지구 [총사업비 : 1,011억원]

- (목적) K-푸드 김 수출 및 김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
- (주요내용) 가공시설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·확충
- (총사업비) 1,011억원 / 국비 126억원, 지방비 65억원, 민간 820억원
- (면적) 279,112㎡ (8.5만평)



④ [충북 보은] 편(Fun) & 힐(Heal) 투자선도지구 [총사업비 : 812억원]

- (목적) 보은군 대표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
- (주요내용)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조성, 숙박 및 체험시설 조성 등
- (총사업비) 812억원 / 국비 199억원, 지방비 107억원, 민간 506억원
- (면적) 110,210㎡ (3.3만평)



⑤ [강원 인제] 원통 제2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(총사업비 : 500억원)

- (목적) 국방·군납 연계 특화산업 거점 조성
- (주요내용) 산업시설, 주거시설(농촌생활환경정비), 지원시설, 공공시설 도입
- (총사업비) 500억원 / 국비 50억원, 지방비 450억원 등
- (면적) 198,101㎡ (6만평)

